

老子『道德經』과 建築學의 定義考

The Lao-tsu's Tao-te-ching and the Definition of the Science of Architecture

장 백 기*
Jang, Baec Kie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efinition of the science of architecture which agree with the ideal of architecture form the roots of Lao-tsu's Tao-te-ching. The science of architecture is that of which the architect wants to realise the ideal of architecture in the realities of life.

Lao-tsu says that the roots of man and universe is 'nothing(無)' and 'doing of nothing(無爲)'. Nothing makes sense with constant-nothing(常無) and constant-existence(常有), and is named with bright(明). And becomes the light(光)

We can say that the definition of the science of architecture by Lao-tsu is 'architecture of nothing'. And 'architecture of nothing' is the foundation of 'the architecture for man'.

When the 'architecture of nothing for man' agrees with the realities, the action becomes 'doing of nothing(無爲)'. And it is the very 'architecture of doing of nothing(無爲之建築)'

I. 序 論

1. 建築理解의 方見

建築은 人間의 問題이다.¹⁾

建築이 人間의 問題이기에 삶의 外面의 形式에 影響을 끼치며 生存과 生活의 空間으로서 生老病死와 喜怒哀思²⁾를 담아내는 實存의 그릇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建築은 '實存을 담은 그릇'의 역할만이 아니라 '休歇處'요 '靜安處'요 '人生의 同伴者'이며 '人間의 歷史'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析和 理解만으로 建築의 根源의 問題에 도달할 수 없다.

建築은 人間의 必要와 欲求에 의해 造成되는 단순한 構造體가 아니라 人間의 思想과 마음씨를 담아내는 有形體인 것이다. 다시 말해 人間의 認識이 建築을 造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建築의 바른 理解는 人間의 存在本質에 대한 탐구가 先行되어야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存在論의 첫 단추는 '人間이란 무엇인가'이다. 그러나 存在本質에 대한 思惟와 明快한 定義는 간단하지가 않다.

西洋哲學의 연구도 問題學³⁾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 정희원, 부산정보대학 건설계열 부교수

** 당 연구는 1999학년도 부산정보대학 학술연구조성 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筆者 拙稿, 「東洋思想과 建築學의 定義 序說」

2) 道家에서는 七情을 喜怒哀思悲驚恐 이라 한다. 지금의 한의학에서도 病因 分析의 宗으로 삼는 진찰 方法이다.

3) 問題學이란 理論의 解答에 앞서 먼저 문제를 수 집·분석하여 그 곤란·모순을 끄집어내는 예비적 연구

4) 盧其鉉, 『삶과 認識』, 「多病閑談」, 1985, 참조

東洋哲學者 盧閑松이 말한다.

“西洋哲學이 橫的 論理學이라면 東洋學은 縱的 論理學이다.

橫的 論理學은 相對的 思惟와 理解에 偏僻되어 會通의 一元的 明證을 제시하지 못한다.

縱的 論理學은 明快한 一元論을 제시 하고, 一元論에 기반하여 諸說과 主張을 總攝하여 一理로 明辯하는 것이다.

縱的 論理學은 橫的 論理學의 上位 개념이며 縱橫을 아우른다.

儒家·道家·禪家の 上論이 바로 그것이다”⁵⁾

存在本質의 思惟는 縱的 一元論만이 會通할 수 있다는 것이다.

存在의 本質을 論理的으로 밝혀낸다는 것은 存在理念을 定義하는 것이며, 存在理念이 定義되면 삶의 개념과 方式이 갈래를 섞갈리지 않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建築理念이 定義되면 여러 樣態의 建築概念이 나타나더라도 一元的 建築理念에 봉사하는 해맑은 建築이 되는 것이다.⁶⁾

建築이 建築다와 지려면 建築概念이 建築理念에 의지하고 봉사하는 現實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建築의 內面性에 대한 탐구는 建築理念이 오롯이 定義될 때까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建築理念의 탐구를 爲해 東洋學을 母體로 삼고자 한다.

當 論文은 그 중에서 老子의 道德經을 중심으로 建築의 理念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道를 탐구한다는 것은 情念(一念)을 本性에 返本⁷⁾하는 것으로써 歸門⁸⁾의 첫걸음으로 삼는다.

5) 盧閑松, 『原始反終의 論端』, 1991. 참조

6) 張百基, 筆者의 拙稿, 「東洋思想과 建築學의 定義序說」 참조

7) 『家의 道學工夫의 一約正路는 自心으로 돌이켜 그 性에 契合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바다와 파도는 두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凡民은 바다와 파도를 구분하여 인식한다.

그 밖의 思惟와 노력은 本性에 返本하려는 준비에 불과할 따름이다.

建築도 하나의 存在事實이며 情念(認識의 內容)으로써 建築理念에 返本해야 하는 것이다.

“온갖 情念은 하나의 根本으로 돌아가고, 하나의 根本에서 온갖 情念이 나타난다”⁹⁾

하는 表意도 道의 根本과 作用을 一約하여 말한 것이다.

道를 탐구한다는 것은 人間의 本性을 밝히 알려고 하는 것이요, 本性을 밝히려는 窮究는 人間內面의 本源을 論理的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는 道를 論理學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論理的 탐구로써 認識論의 至極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道德經의 本意에 대한 論理的 접근이 없고서 道德經의 한 章이나 한 字句에 얽매어 번역·해석하는 것은 牽強附會가 될 것이 明若觀火 하기에 다음 章에서 老子本意에 대해 主見을 세워 一約에 나아가고자 한다.

2. 問題 提起

모든 建築과 建築概念은 建築理念으로 一約되고, 一約된 建築理念으로부터 ‘人間을 爲한 建築’이 나타난다. 그리고 ‘人間을 爲한 建築’이 一般化되는 것이야말로 人間의 삶에 하나의 軸이 되고 樞가 되는 建築理想의 實現인 것이다.

파도가 바다가 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파도는 언제나 바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도(凡民)는 바다(聖人)가 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파도가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두 物件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返本’이란 認識의 오해를 버리고 ‘自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8) 註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返本의 방법으로써 自性에 契合하는 것을 正路를 삼는다는 뜻이다.

歸란 ‘返本한다’는 의미이며 門이란 ‘오직 이 길 뿐’이라는 말이다.

9) 萬殊 一本이요 一本萬殊니라(宋學) 禪家の ‘萬法歸一’하니 ‘歸何處인가’라는 話頭와 서로 통한다.

建築의 理想郷을 꿈꾸는 모든 建築家의 理想을 現實化하는 端初와 根本이 建築理念의 定義에 있는 것이다.

昨今에 「老子思想에 나타난 建築觀」¹⁰⁾이란 취지의 論文과 著書가 보이는 것도 「建築定義」에 對한 默示的 渴望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다만 人心¹¹⁾의 偏僻된 知識으로 學習하여 習得된 造合지식을 바탕으로 思惟하는 術知라면 그 시도는 疢疾만 낳을 뿐이다.¹²⁾

오로지 本性의 恬憺虛無¹³⁾를 배워 測知한 然後에 立說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더라도 약간의 誤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誤謬는 學問路程의 豫想되는 誤謬와 看過되는 誤謬일 뿐인 것이니 부끄러워할 따름이며 무서워 할 바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偏僻의 病을 알고 그 偏僻에서 벗어나려는 思惟가 心柱가 되기에 감히 論說에 나아가는 辨으로 삼는다.

道德經 71章에 말한다.

“알지 못하는 바를 아는 것이 최상의 지혜요, 알지 못하는 데도 안다고 하면 病에 빠진다.

病이 病인줄 알면 病이 아니게 된다.

聖인이 病에 빠지지 않는 것은 病을 病이라 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病들지 않는 것이다”

(知不知는上이요 不知知는病이라 夫唯病病일새 是以로 不病이니라 聖人不病은 以其病

病이니 是以不病이니라)¹⁴⁾

本稿는 老子思想의 根本을 測知하여 建築理念에 符合하는 「建築學의 定義」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II. 『道德經』 入說

1. 老子의 생애

司馬遷의 史記에

“老子는 礪나라 苦縣 厲鄉 曲仁里 사람이고 姓은 李氏이고 字는 伯陽, 諡를 聃이라 하였으며, 周나라 守藏室의 史라는 벼슬을 지냈다. 일찍이 孔子가 周나라로 가서 老子에게 禮를 물으려 하였는데, 老子는 ‘그대는 교기(驕氣), 다욕(多慾), 태색(態色), 음지(淫志)를 버려라’고 꾸짖었다” 한다.

老子의 생애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老萊子, 太史 儋, 老聃, 李耳 等の 說이 있으며 時代도 다르게 보는 考證學者가 있으나 대체로 司馬遷의 史記에 따른다.

2. 老子의 연구

道德經은 戰國時代에도 세상에 알려졌었다.

荀子和 呂氏春秋에 老子의 思想에 대한 비판이 보인다.

韓非子에는 解老篇·喻老篇에 道德經의 내용을 강설한 부분이 보인다.

史記에는 “韓非子是 黃帝와 老子의 學에 根本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莊子의 南華經에는 곳곳에 老子의 말을 인용하고 해설한다.

清代의 초횡(焦竑)은 “老子는 본시 子書였는데 漢나라 景帝 때에 비로소 經으로 바뀌어 졌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老子書’였다가 ‘道德經’으로 존송되었다는 것이다.

道德經의 註釋은 魏나라 王弼(226~249)로부

10) Amos Chang, 윤장섭역 「建築空間과 老子思想」, 葉樹源, 이재훈, 김현정 역 「建築과 哲學觀」, 기타의 논문에 나타난 默示的 취지
 11) 書經에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隱微하다”하였다. 人心은 偏僻된 凡民의 마음이고 道心은 偏僻없는 聖人의 마음이다.
 12) 孟子이르기를 “德慧를 術知로 認識하는 것은 항상 열병에 감혀 지내는 것과 같다”(德慧術知者 是恒存乎疢疾也니라)하였다.
 13) 恬憺: 寂然(易, 繫辭傳), 淸淨, 安安, 精安, 空寂의 뜻으로서 本性의 本然한 상태 즉 빈 거울과 같음을 말한다. 다시말해 虛空과 같음을 의미한다. 禪家에서는 空寂靈知, 虛空·虛空性이라고도 한다.

14) 老子 道德經 71章

터 시작하여 수많은 研究가 있었으나 河上公, 傅奕, 愍山의 註釋이 四宗釋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李栗谷이 순언(醇言)을 남겼고, 朴世堂이 註釋했으며, 金吞虛가 譯解하였다. 李栗谷은 道體와 無爲를 지나치게 간결히 말하여 상세히 밝히지 못하였고, 朴世堂은 道德經 18章 등에서 愚迷를 보였으며, 金吞虛는 道體를 주로 說했으나 간결하지 못한 흠이 있다. 근래에 柳多石의 講義가 있으나 本意에서 는 멀다.

筆者는 王弼과 愍山의 註에서 大義를 배우고 그 要를 취했다.

Ⅲ. 道德經 大要

1. 恬憺虛無와 建築理念

恬憺虛無¹⁵⁾란 老子가 말하는 道の 體¹⁶⁾이며, 本性的 本然한 상태이다.

恬憺虛無란 이름은 內經·素問¹⁷⁾에서 黃帝·軒轅氏가 처음 말하고 老子가 따랐다.

老子는 “恬恬이 道の 根源이다”¹⁸⁾라 하고 莊

子是 “恬恬을 회복하여 항상한 이가 곧 聖人이다.” 하였다.¹⁹⁾

道란 사람의 ‘本性 그대로’²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디의 恬恬에 돌아가 스스로 그러함(自然)’의 뜻에 다름 아니다.

사람의 性稟을 지칭하여 道라하고 道の 다른 이름이 淸淨光明²¹⁾, 性, 中²²⁾, 心이라 하며, 莊子は 無心²³⁾이라고 하였다.

또한 書經에는 道心이라 하였고, 易에 ‘寂然不動’²⁴⁾이라 하였으며 程伊川은 ‘虛靈’이라 하였고, 禪家에서는 ‘空寂靈知’라 한다. 禪家は 위의 거의 모든 지칭 用語를 수용하나, 주로 ‘無心’으로 표현한다.

聖인과 凡民의 같고 다름을 敎說하는 데에 道家는 有爲와 無爲, 儒家는 人心과 道心, 禪家は 有心과 無心으로 對別한다.

禪家は 有爲法과 無爲法으로도 敎說한다.

그러나 恬恬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이름이 없고, 이름을 두어도 強名인지라 凡民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道德經 25章에서 本性的 恬恬을 설명한다.

“한 물건이 混沌히 이루어져 天地보다 앞서 있었다.

寂然하고 無象이지만 홀로 두렁이 存在하여 항상하여 不變하고, 모든 것에 두루 行하여 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天下의 어머니

15) 素問 上古天真論에

“대저 上古의 聖인이 백성을 가르치심에 이르시기를 ‘虛邪賊風을 피하고자 하거든 本性的 恬恬虛無에 습하면 眞氣가 향상하게 따르나니, 이에 精神이 오롯하니 病이 어디를 좇아 침범하리오’(夫上古聖人之敎下也에 皆謂之虛邪賊風을 避之有時에 恬恬虛無로 眞氣從之면 精神內守하니 病安從來리오) -

16) 體 : 모습이없는 모습(無象之象)과 그 作用이 돌아와 나니, 凡民은 모습이없음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道를 구름 밖의 세상으로 본다.

聖인이 不得已 하여 體와 用 즉 靜과 動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한 물건에 있어 靜時와 動時가 있어 두 時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한 물건이 두 물 건으로 쪼개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두 時도 觀念 中의 일이다.

17) 內經·素問은 道家의 祖書로써 道體를 밝히고 凡民에게 病이 일어나는 까닭과 治法을 가르친 책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本心인 恬恬을 회복하면 病이 없어 天壽로써 天壽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治方은 恬恬으로써 用之하는 것이요. 그 用之가 無爲이며 다른 이름이 無用之用이다. 恬恬大道로써 살아가는 그 모습을 道德經 4章, 56章에서 和光同塵이라 하였다.

이는 中庸에서 말하는 中和요 時中의 道인 것이다.

18) 恬恬이 爲上이라 勝而不美니라(道德經 31章)

19) 南華經 齊物論에 云 “以恬憺으로 爲上子니라”

20) 老子의 本義는 ‘無爲自然’이다. 無爲란 ‘本性 그대로’ 用之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無爲自然’이란 ‘本性自然’이다. 이 때의 自然이란 ‘스스로 그러함’이라 누가 시키거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自然을 天然이라고도 표현한다.

21) 內經·素問, 上古天真論 “天氣는 淸淨光明也니라” 道德經 45章에 “淸淨이 爲天下正이니라”

22) 道德經 5章에 “不如守中”이라 하여 恬恬을 中이라 하였고, 論語 堯曰篇에 “允執其中”이 보인다. 또한 中庸·一章에서는 ‘中者는 天下之大本’이라 하였다.

23) 莊子 齊物論에 “無心으로 世上을 다스리면 함이 없이 敎化를 이룬다”(無心御世하면 無爲以化니라)

24) 易 繫辭傳 上 “本性은 寂然하여 不動이나 萬物을 應하며 즉시 한 몸으로 통하여 萬象을 이룬다” (易은 寂然不動이라가 感而遂通天下之故로)

라 할 만 하다“²⁵⁾

道德經 14章에서 말한다.

“보려해도 볼 수 없는 것이어서 夷라 하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이어서 希라 하고 만지려 해도 만지지 않는 것이어서 微라 한다.

이 셋은 설명하기가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混沌하여 하나인 것이다“²⁶⁾

이어 말한다.

“(惝怳은) 이름지을 수 없고 無物로 회복하여 돌아간다.

이것을 일러 ‘모양없는 모양(無狀之狀)’이요 ‘형체없는 형체(無象之象)’라 일컫고, 이를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恍惚이라 한다.

그것은 맞이해도 그 머리를 알 수 없고, 애써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보지 못한다.“²⁷⁾

道德經 35章에 말한다.

“聖인이 모습없는 모습(無象之象)으로 다스림에 天下가 크게 順應한다.“²⁸⁾

道德經 34章에 말한다.

“大道는 지금하게 텅 비어 있구나“²⁹⁾

25) 有物混成하여 先天地生이라 寂兮寥兮 獨立而不改하고 周行而不殆 하니 可以爲天下母니라(道德經 25章)

26) 夷란 모습 없는 것, 希란 소리 없는 것, 微란 형체가 없는 것. 視之不見을 名曰夷요 聽之不聞을 名曰希요 搏之不動을 名曰微하니 此三者는 不可致詰이라 고로 混而爲一이니라.

27) 不可名이라 復歸於無物하나니 是爲無狀之狀이며 無象之象이요 是爲恍惚이니 迎之不見其首요 隨之不見其後니라(14章)

28) 執大象에 天下往이라(35章)

29) 大道汜兮(34章)

道德經 1章에 말한다.

“항상한 無(常無)로써 道의 妙體를 보고, 항상한 有(常有)로써 徼用을 본다“³⁰⁾

道德經 45章에 말한다.

“淸淨(惝怳)이 天下의 根本이다“³¹⁾

惝怳虛無의 本性이 天地보다 앞서 있었고, 不變하며, 모습없어 이름지을 길 없으며, 모든 사람이 회복하여 돌아가야 할 곳이며, 텅 비어있고, 天下의 根本이 된다고 하였다.

위의 25章, 14章, 35章, 1章, 45章이 道德經의 大體이나 道德經 81章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道德經을 읽어감에 수시로 그 大體를 돌이켜 보아 金言으로 解得하여 知識을 늘이는 病을 경계한 것이다.

道德經의 모든 章이 惝怳의 大體를 벗어난 곳이 없다.

읽는 이가 惝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벗어난다면 道德經의 本意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建築學에 있어서도 모든 建築과 建築概念이 建築理念에서 벗어난다면 올바른 建築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建築理念은 建築의 不變의 가치요, 建築이 建築理念에서 벗어나지 아니 한다면 어떠한 Fashion을 窮理하고 收容하여 變化하더라도 바른 建築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變化는 곧 ‘變化하는 不變’이다.

그러므로 建築은 不變하는 理念 위에 ‘變化하는 不變’을 심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30) 常無로 欲以觀其妙하고 常有로 欲以觀其微니라 (1章)

徼(微)는 徼와 같다. 끝, 결말의 뜻으로 모습없는 흔적과 자취를 본다는 뜻이다.

31) 淸淨이 爲天下之正이니라(45章)

2. 無爲와 建築

無爲란 憺恬虛無한 本性의 作用이다.

聖人の 마음은 憺恬虛無 하고 凡民의 마음은 虛邪賊風³²⁾에서 노닌다.

그러므로 虛邪賊風에서 벗어나서 憺恬虛無로 돌아가자는 것이 老子의 간절한 가르침이다.

虛邪賊風이란 七情의 偏僻되이니 喜·怒·憂·思·悲·驚·恐에 치우친 病든 마음이다.

虛邪賊風이란 七情에 偏僻되어 마음을 쓰는 것이고, 憺恬虛無란 七情을 쓰되 無僻한 것이다. 虛邪賊風의 思惟는 病을 낳고 憺恬虛無의 思惟는 無病이다.

엄밀히 말하면 聖人은 七情이 없다.

七情이란 假有³³⁾이기 때문이다.

建築의 定義도 無僻之心에서 나온다면 建築定義와 建築理念은 一體일 것이다.

老子의 無와 無爲를 살펴서 建築의 無와 無爲의 效用을 가름해 본다.

1) 無와 無爲

‘無’字는 국어사전에 ‘없음’ ‘現存하지 않음’ ‘있지 아니하다’ ‘空虛’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것은 日常의 ‘단순 無’의 개념에 불과하다.

學問的 思惟로써의 無의 개념을 살펴보고 老子의 無에 대한 理解에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 이 宇宙 內의 事物 中에 참으로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무엇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것을 ‘無’라 하고 아는 것을 ‘有’라고 하는 것 같다.

둘째, 모습있는 것을 ‘有’라 하고 모습 없는 것을 ‘無’라 한다.

셋째, “이 房에 아무도 없다” “시계가 없어졌다” 라고 할 때의 無는 지정된 場所에 특정한 事物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場所變更의 無’라 하겠다.

넷째, “종이가 타서 재가 됐다”라 할 때의 無가 없어진 無는 ‘形態變更의 無’가 된다.

다섯째, 存在論의 無는 相對的 認識 속의 無이다.

前述한 다섯 가지의 無는 제한된 時空間에서 有形의 개념으로 약속된 無이다.

老子의 無는 이와 달라서 ‘絶對 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道徳經 1章의 ‘常無’는 ‘항상한 無’ ‘不變의 無’란 뜻이다. ‘常無’는 無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觀妙’의 作用을 하는 것이다.

‘觀妙’가 있으면 ‘有’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無’ 즉 ‘常無’로써 不變이라 한다.

老子의 無는 사람과 萬物의 本性을 지칭하는 것이다. 老子에 있어서 本性은 ‘모습 없음’이며 ‘모습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일이 없음’인 것이다.

‘모습없는 모습’은 ‘無’가 되고 ‘하지 않는 일이 없음’은 ‘有’가 되는 것이니 有와 無의 관계는 한 物件의 두 가지 이름에 다르지 않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事物의 이름과 人間社會의 法과 기타 概念이 ‘이름뿐인 이름’ 즉 ‘빈 이름(虛名)’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有無’에서 벗어난 ‘常無’와 ‘常有’의 개념을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有는 無의 반대개념이 아니요, 有가 곧 無이며 無가 곧 有인 것이다.

32) 憺恬虛無의 註 참조. 虛邪賊風이란 거짓되고 샅된 생각이요 憺恬虛無는 本然의 性 그대로 이다. 道를 공부하는 이가 虛邪賊風을 버리면 憺恬虛無가 말쑥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33) 假有 : 凡民은 七情의 偏僻에 젖어 七情을 참마음(本然之心)으로 認識하고 있다. 비유컨대 七情이란 맑은 눈 그대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색안경을 벗고 사물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고 聖人이 가르치지만 凡民은 색안경을 자신의 家寶로 여기고 버리려 하지 않는다. 색안경은 눈이 아니다. 색안경이 곧 七情인 것이다. 색안경이 假有라 하는 것은 색안경이 눈이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凡民은 색안경이 本性이요 自身이라고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常無와 常有는 同一한 근원에서 나왔으나, 각기 다른 이름을 가졌을 뿐이다”³⁴⁾

한 것이다.

때로 無는 ‘이름 붙이지 아니한 상태’ 有는 ‘이름 붙인 그 이름이 正名인 줄 아는 것’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凡民은 이름과 개념을 잘 認識하여 知識으로 삼고, 그 學習된 知識의 노예가 된다.

老子는 그것을 경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學問(知識)을 배우는 이는 나날이 보태고, 道를 배우는 이는 나날이 덜어낸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無爲에 다달으니, 함이 없으면서 하지 않는 바가 없다”³⁵⁾

라 한 바와 같이 老子의 無는 無爲를 이해시키기 위한 바탕되는 敎術인 것이다.

老子의 無는 孔子의 四無와 通한다.

四無란 無我·無意·無固·無必³⁶⁾이다.

無我란 몸(身)과 마음씨(七情)가 眞我(참 나)가 아니라 憍恬虛無의 性이 眞我란 뜻이요, 無意란 七情에 偏僻되지 아니한 本然의 ‘性 그대로’를 의미하며, 無固란 마음(性)에 고집함이 없어 萬物을 내 몸으로 여기는 것이며, 無必은 事를 行하매 꼭 하고자 하는 것도 없으며 꼭 하지 않고자 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無我·無意는 憍恬虛無의 마음이요 無固·無必은 無爲의 마음이다.

老子와 孔子가 하나의 道로 通하는 句節이라 하겠다.

老子의 無를 통해 建築의 無를 찾아본다.

먼저 建築의 이름(一般的 知識)과 建築의 定型化 된 理論을 잊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사람에게 집(建築)은 무엇이며, 집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建築欲求와 建築理論의 ‘道具’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世上의 모든 制度와 理論과 技術이 그렇듯 建築도 사람의 ‘必要’에 의한 ‘道具’에 다름 아니다.

만약 建築家가 無意識의인 學習知로 ‘建築의 道具化’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 이름과 理論을 던져버리고 ‘建築은 사람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無의 建築’ 그것은 ‘人間을 爲한 建築’의 根本인 것이다. ‘人間을 爲한 無의 建築’이 現實에 符合하는 行爲는 無爲가 된다. 곧 ‘無爲의 建築’인 것이다.

그리하면 ‘無의 建築’은 ‘常無의 建築’이 되고, ‘無爲의 建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建築理念에 봉사하는 現實이 될 것이다.

2) 無爲와 建築

老子에 의하면 사람이 一生을 살아감에 있어 어둠에 얽매인 ‘有爲의 삶’에서 벗어나 밝음에 속하는 ‘無爲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無爲의 삶이란 ‘밝은 삶’이다.

知識과 分別 그리고 善惡是非에서 벗어나 絶對의 自由를 누리라는 것이다.

建築에 있어서도 ‘어두운 建築’과 ‘밝은 建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建築은 하나의 觀念의 有形的 所産이다. 그러므로 건축은 觀念인 것이다.

觀念이 어두우면 ‘어두운 建築’으로 나타나고, 觀念이 밝으면 ‘밝은 建築’으로 나타난다.

建築은 觀念이며 現實이다.

建築概念이 建築理念으로 指向되어 있으면 ‘밝음을 向한 建築’이 되고, 建築概念이 作爲의 觀念에 머물러 있으면 ‘어두운 建築’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4) 常無와 常有는 同一나 出而異名이라(1章)

35) 爲學日益이요 爲道日損이니 損之又損하여 以至於無爲하나니 無爲而無不爲니라 (48章)

36) 四無는 絶四이다. 我·意·固·必을 絶했다는 것이다.(論語 子罕4)

그러므로 建築學은 建築理念을 現實 속에 實現하려고 하는 學問인 것이다.

建築이란 存在事實이 하나의 文化現象으로만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밝은 文化' 그 자체여야 한다.

筆者의 拙稿 「東洋思想과 建築學의 定義 序說」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축은 '人間을 위한 建築'이어야 하며 집(建築)의 內容은

- (㉠) 靜安한 休歇處
- (㉡) 正思·正行을 도우는 곳
- (㉢) 해맑은 樂器의 기능
- (㉣) 人間과 집과 自然은 一體

라는 思惟가 담긴 건축계획이 있어야 하며

- (㉠) 주변 環境을 理解한 집
- (㉡) 眺望이 배려된 집
- (㉢) 通明을 이루는 집
- (㉣) 必要條件에 簡明히 符合하는 집

등의 造化를 求하는 洞察力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이러히 造成된 집(建築)은 어떠한 材料와 創意力과 技術이 變化를 꾀하더라도 建築의 本意를 害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變化하는 것은 不變의 가치에 기반한 自由意志이며, 건축에 있어서의 變化와 不變의 概念은 뿌리와 줄기의 關係인 것이다.

變化와 不變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造成되는 건축은 可히 '無爲의 건축'에 가깝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老子에 의하면 凡民이 無爲의 道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첫째가 無知·無欲이다.

“항상 凡民으로 하여금 無知하게 하고 無欲하게 하여 知識을 가진 자가 감히 일을 도

모하지 못하게 한다”³⁷⁾

凡民이 知識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無知하게 한다는 것은 凡民이 小智에 구속되어 大智를 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한 말이다.

莊子が 齊物論에

“大知는 한가롭고 小知는 바쁘다”
(大知閑閑하고 小知는間間하나라)

한 것이 그것이다.

現象的 건축지식으로 사람과 자연이 한 몸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 知識은 病에 다름 아니다.

대체로 건축은 人間의 욕심이 반영된다.

그 욕심을 無化하고 天然心으로 건축에 나아간다면 無爲의 建築이 實現될 것이다.

이는 純粹 建築知識이 排除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가 素樸이다.

“道는 모습없이 항상하여 이름이 없다.

道는 素樸하여 그 쓸모가 미미하지만 天下가 감히 거느리지 못한다”³⁸⁾

無知·無欲에 나아가면 素樸함이 따른다.

素樸함이 없다면 道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聖人は 지극히 素樸(至樸)한 이이다.

素樸의 정신을 이해하는 이의 建築概念은 建築理念을 指向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셋째가 버림(損)이다.

이미 無知·無欲하고 素樸의 땅에 나아갔다면 모든 知識을 버리는 노력을 한다.

現象的 건축지식을 완전히 잊은 이는 항상하게 建築理念 가운데 있을 것이다.

37) 常使民으로 無知無欲하며 使夫知者로 不敢爲也 하나라 (3章)

38) 道常無名이라 樸雖小이나 天下가 不敢臣이니라 (32章)

老子는 말한다.

“道를 배우는 이는 나날이 버린다”³⁹⁾

이후의 工夫로써 ‘守靜之篤’⁴⁰⁾ ‘誠全’⁴¹⁾ ‘復歸於無極’⁴²⁾ 등이 있으나 本稿의 내용상 여기에서 그친다.

無知·無欲, 素樸, 損의 思想에 귀 기울지 않는다면 老子의 理解는 기존의 知識에 또 하나의 知識을 보태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道德經을 通해 본 建築學은 老子思想의 바른 이해를 先決問題로 하는 것이다.

老子의 無爲는 前稿에 언급한 바와 같이 道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心에 偏僻이 없음이다.

無爲에 대한 論理的 접근은 가능하나 실제로 無爲의 心을 自得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無爲의 삶’이 ‘맑은 삶’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목표는 ‘맑은 삶’이며 建築은 ‘맑은 建築’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IV. 道德經 11章의 要와 室의 意味

..... 鑿戶牖以爲室에 當其無하여 有室之用이라 故로 有之以爲利는 無之以爲用이니라⁴³⁾

(門과 窓을 내어 室(집)을 만들면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室은 쓰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습있는 것(有)의 利(성취)

는 모습 없음(無, 비어 있음)의 效用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昨今の 老子 道德經 研究와 번역에 여러 類型의 觀點과 틀이 있지만 筆者의 번역은 위와 같다.

無는 常無⁴⁴⁾로서 虛空이요, 室의 構造體를 세우고 門과 窓을 내니 드디어 室이 나타나므로 常無의 效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無는 常無로써 室이 나타나기 前과 後에도 항상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室이 나타나기 前까지 항상한 無의 效用을 알지 못한다.

또한 室이 나타난 이후에도 常無를 밝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老子는 이 室의 비유로써 道의 實在를 가르치려 한 것이다.

이 비유의 窮極은 사람의 마음(性)과 마음씨(情)의 關係 및 本質을 밝히려 한 것이다.

道(마음)는 常無이며 常有이다. 모습이 없으며, 나거나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道德經 33章에 말한다.

“本體의 자리(常無)를 떠나지 않는 이는 영원하고, 죽어도(沒身) 사라지지 않으므로 長壽라 한다”⁴⁵⁾

道德經 11章의 大義를 王弼⁴⁶⁾과 憨山⁴⁷⁾의 評解를 들어 본다.

王弼이 말한다.

“壁이 예가 된 까닭은 모두 無로 쓰임을 삼기 때문이다. 無란 有가 이롭게 되는 所以이니, 모두 無에 의지해서 쓰인다는 말이 다”⁴⁸⁾

39) 爲道는 日損이니라(48章 損之章)

40) 靜은 淸淨光明의 靜이며 虛이다. 靜을 지켜 독실히 함은 工夫가 至人의 경지에 가깝다.(16章 知常章)

41) 誠은 한결 같이 守靜하는 것이니 神人의 경지이다.(22장 歸之章)

42) 神人·聖人의 경지이다. 無極이란 말은 老子에서 처음 나온다. 周濂溪가 無極而太極이라 한 것은 老子에게서 빌린 말이다.(28章 無極章)

43) 鑿 : 뚫는다(穿也), 戶 : 門, 牖 : 들창 門, 利 : 성취, 쓰임새, 有 : 모습 있음(有形), 無 : 모습 없음(無形)

11章의 章名은 大用章 혹은 虛中章이라 칭한다.

44) 道德經 1章

45) 不失其所者는 久요 死而不亡者는 壽니라(33章 明壽章)

46) 王弼(226~249)

47) 憨山(1546~1623)

憨山이 말한다.

“세상사람들이 事物의 쓸모만 알뿐 쓸모 없는 것의 쓰임새는 모른다.

세상사람들은 室이 쓸모있는 줄은 알지만 門과 窓의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室이 有用하게 된 줄은 모른다.

예컨대 天地가 모습을 띠고 있어 天地의 有用함은 알지만 모습이 없는 道로 말미암아 天地의 쓰임새가 있게 된 줄은 모른다.

또한 사람이 모습이 있는 까닭에 누구나 사람이 쓸모가 있는 줄은 알지만 모습이 없는 虛靈한 마음에 의지해 사람으로써 묵을 하게 된 줄은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모습있는 存在가 쓰임이 있지만 實在는 모습없음에 의지하여 쓸모가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어 있는 것은 스스로 作用할 수 없고 모습을 지닌 存在에 依託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老子的 가르침은 모습에 나아가 無라는 根本을 보는 데 있다.

만일 모습있는 存在를 당하여 모습없음(無)을 보면 비록 모습있는 존재가 있다해도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⁴⁹⁾

王弼은 無에 의지해서 有가 쓰임이 있다고 하였고 憨山은 無로 인해서 有가 쓰임이 있으나, 有의 當體도 無라는 것이다.

當 11章의 要를 建築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 章이 室의 비유로써 道를 밝히려 한 것이나, 憨山에 의하면 室이 有이면서 無, 즉 常有이면서 常無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室의 가운데 ‘빈 곳’만이 無가 아니라 壁도 無라는 말이다.

虛空에 壁을 쌓으면 壁의 크기만큼의 虛空이 잠식되어 보이니 虛空은 제자리에 恒常하며, 虛空과 壁은 두 물건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建築의 빈 곳만 無가 아니라 建築도 無라는 뜻이 된다.

老子的 本義가 그러하다면 建築은 無의 體性을 지닌 有形인 것이다.

그러나 建築은 사람의 必要와 欲求에 의해 造成되고 지나친 欲求은 自然과의 造化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根源의 和平을 해치는 構造物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찌하면 建築이 老子的 ‘本來 無’에 合할 수 있을까? 그 실마리로서 道德經 25章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사람을 본받으며, 하늘은 道를 본받고, 道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⁵⁰⁾

하였다.

道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고 한다.

‘스스로 그러함’이 바로 無爲이다.

<無爲와 建築>에서 無爲에 나아가는 路程은 ‘無知·無欲과 素樸과 損’이라 하였다.

室은 本來로 常無이면서 常有이나 室이 無爲自然의 造化로움에 合하기 위해서는 建築家의 마음이 먼저 無欲·素樸을 求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室은 本來로 常無이나 사람들의 有知·有欲과 不樸함으로 인해서 本來의 造化로운 모습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素樸에 한 발짝 내디딘 이는 歷史의 痕迹과 現世의 집(建築)에서도 室의 常無自然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48) 壁所以成者는 而皆以無爲用也니라 言無者는 有之所以爲利이니 皆賴以爲用也니라(老子 11章 王弼注解)

49) 憨山의 道德經 直指

50) 人法地하고 地法天하고 天法道하고 道法自然이니라 (25章 強名章)

IV. 結 論

老子思想은 人間의 本性을 밝혀 自然과 한 몸 되어서 無爲自然에 復歸⁵¹⁾하는 것을 宗으로 삼고 있다.

序頭に 밝힌 바와 같이 建築은 人間의 問題이다. 人間의 知識과 思惟와 必要로부터 建築이 태어나고 行해 졌으며 다듬어져 왔다.

昨今에 와서 經濟的 利와 허영과 권위를 앞세운 價値觀이 得勢하여 純粹建築의 本質에 逆行하는 現象이 無批判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建築은 人間을 위한 建築이어야 하며 그 大流는 凡民의 住居生活에 基盤하여야 한다.

凡民의 生活과 正思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建築은 '나쁜 建築'이다.

'나쁜 建築'이 나타나는 背景에는

- (㉠) 傳統建築의 沒理解
- (㉡) 現代建築의 利的 指向
- (㉢) 現代建築의 美的 指向
- (㉣) 建築本意의 忘却
- (㉤) 建築定義의 不明
- (㉥) 建築學의 非哲學的 思惟

등이 있다고 하겠다.

'좋은 建築'의 形態論의 意味를 老子에서 찾아 본다. 道德經 67章에 말한다.

“내게 세가지 보배가 있으니 오직 이것만을 소중하게 여긴다.

첫째는 자비(慈)이고

둘째는 검박(儉樸)함이며

셋째는 天下에 我를 내세우지 아니

함(不先)이다.⁵²⁾

51) 無爲의 道에 契合하는 것을 '復'이라 한다. '回復하다'의 뜻이다. 다만 凡民의 心에서 七情의 偏僻을 損하면 摠括虛無의 道에 回復한다고 한다. '復'字는 論語에 克己復禮의 復과 같은 뜻이다.

老子的 道가 凡民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慈·儉·不先이라고 한다.

建築의 뿌리에 凡民을 사랑함과 儉約·素樸의 精神과 스스로 낮추어 世上에 해맑은 배품을 잊지 않는다면 '좋은 建築'을 向한 建築精神이 確立되었다고 하겠다.

'좋은 建築'에는 慈·儉·不先이 省略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純粹建築을 위한 端初는 建築定義의 存在論的 探究에서 찾아야 한다.

本稿는 그런 緣由로 老子의 無爲自然 思想의 窮究를 通해 建築理念을 더듬어 보고 建築定義를 세워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老子의 바른 理解가 要求되고, 主見을 立說해야 하며, 建築의 本意的 考察이 整理되어야 한다.

그러하여야 老子와 建築의 만남을 試論 할 수가 있는 것이다.

筆者는 賤識이라 論究過程의 誤謬를 學問上의 試論으로 省覺하고 本稿을 造論하였다.

이에 老子의 無와 無爲는 一元存在論이며 常無와 常有도 一體라는 것을 밝혔다.

老子의 無에 建築理念이 符合해야 하며, 常無를 基盤하여 建築定義가 立說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建築學이 人間을 위한 學이기에, 그 바탕을 人間의 存在精神의 究明과 함께 論議되지 못하면 建築學은 形態論理學의 水準을 넘지 못할 것이다.

다음 論文인 「韓國의 傳統建築과 建築定義」에서 補論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詩經(傳統文化會 刊 성백효 譯註)
2. 書經(傳統文化會 刊 성백효 譯註)

52) 我有三寶하여 持而寶之하나니 一曰 慈요, 二曰 儉이요, 三曰 不敢爲天下先이다.(67章 慈衛章)

3. 論語(傳統文化會 刊 성백효 譯註)
4. 孟子(傳統文化會 刊 성백효 譯註)
5. 大學·中庸(傳統文化會 刊 성백효 譯註)
6. 四書大要(2001. 復古書堂, 盧珪鉉)
7. 原始反終의 論端(1991, 閑松堂), 李木偶 外
8. 삶과 認識(1986, 韓國評論), 盧珪鉉 外
9. 김정설(1986), 『풍류정신』, 정음사.
10. 김탄허(1985), 『현토역주 도덕경』, 도서출판 교림.
11. 김학주 역(1987), 『신안역 노자』, 명문당.
12. 김학목 옮김, 『박세당의 노자』(서울: 예문서원, 1999)
13. 노태준 역해(1986), 『신역 도덕경(노자)』, 홍신문화사
14. 비지구 해(1983), 『원본주역』, 세창서관
15. 신현중, 『老子』(서울: 청우출판사, 1957)
16. Amos Ih Tiao Chang 저 윤장섭 역(1984),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7. 엽수원 저, 이재훈·김현정 역(1989), 『건축과 철학관』, 대건사.
18. 王弼, 『老子注』(『諸子集成』)
19. 이강수, 『도가사상의 연구』(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5)
20. 李慶雨 譯(1994),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1,2』, 여강출판사
21. 李珣, 『醇言』
22. 이재훈, 노자사상과 한국전통건축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3. 이종익(1975), 『동방사상론총』, 보련각.
24. 장백기(1966), 「『도덕경』 ‘허중장’의 해석과 건축학적 적용에 대한 소고」, 부산전문대학논문집 제18집.
25. 조민환, 『유학자들이 보는 노장철학』(서울: 예문서원, 1996)
26. 허항생, 『노자철학과 도교』 노승현 옮김(서울: 예문서원, 1995)